

아마로네의 현대적 재해석... 알레그리니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03

먼저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늦게 수확한 포도는 세심하게 말린다. 포도에서 수분이 절반 가량 빠져나가면서 당도, 산도, 복합미가 응축된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에서 아마로네 와인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 아파시멘토다. 건포도로 만들었으니 알코올은 높고 진득한 와인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농밀한 과실의 풍미는 얻었지만 산도는 살아있고, 타닌은 부드럽다. 아마로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마로네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엘리아 아초리(Elia Aztori)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레그리니는 아마로네 양조방식과 스타일 모두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며 “2023년부터는 가문의 7세대가 알레그리니 경영을 맡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어느 지역인지를 보자. 지도를 떠올려 장화 모양의 입구 부분인 북부 베네토다.



알레그리니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엘리아 아초리(Elia Aztori)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레그리니의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마로네 와인은 잘만 만들면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지만 문제는 포도를 말리는 아파시멘토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발폴리첼라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습해 포도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잦았다. 포도 손실률이 40%에 달하다 보니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 역시 떨어졌다. 이때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곳이 알레그리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최첨단 건조 시설을 만들었더니 포도 손실률은 1%대로 뚝 떨어졌다. 품질은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



왼쪽부터 알레그리니 소아베 2024, 알레그리니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4, 알레그리니 팔라쵸 델라 토레 2022,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0. /안상미 기자

었다. 발폴리지역 전체가 아파시멘토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순간이다.

알레그리니의 새로운 세대가 꾀한 혁신은 클라시코와 토착품종에 대한 집중이다. 지역 전체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은 발폴리첼라 DOC, 석회암 점토와 화산토로 구성된 구릉지대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DOC로 따로 구분된다. 기존 발폴리첼라 와인은 더 이상 알레그리니의 레이블을 달고 나오지 않는다.

기다렸던 만큼 아마로네 먼저 맛본다. 역시 강렬함보다는 우아함과 균형

감이 먼저다.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0’은 코르비나를 주 품종에 롬디넬라, 오셀레타 등을 섞었다. 말린 자두와 검은 체리같은 과실에 다크초콜릿과 향신료 뉘앙스가 복합적이다. 입 안 전체를 가득 채우지만 타닌은 부드럽고, 산도도 명확하다. 잡티없는 깔끔함이 고급스럽다.

‘알레그리니 발폴리첼라 클라시코’가 발폴리첼라라는 지역을 잘 보여주는 와인이라면 ‘알레그리니 팔라쵸 델라 토레’는 알레그리니의 가치를 입증하는

와인이다.

어떻게 하면 와인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알레그리니는 기존 고정관념을 모두 깨버렸다. 포도의 70%는 일반 레드 와인 방식으로, 30%는 아마로네와 같은 아파시멘토 방식으로 건조해 각각 숙성한 뒤 블렌딩했다. 쉽게 말하면 발폴리첼라에 아마로네를 더한 것. 잘 익은 과실미가 살아있으면서도 향신료향 등 풍미는 복합적이고, 산도가 살아있다. 지금은 알레그리니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와인이다.

‘알레그리니 소아베 2024’는 토착 화이트 품종인 가르가네가로만 만들었다. 알레그리니는 원래 레드 와인만 생산했는데 15년 전쯤부터 화이트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아베와 루가나 등에 투자해 화이트 와인을 본격 만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화이트 와인도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전에는 샤르도네도 일부 섞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토착 품종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화사한 흰꽃 향기와 함께 아로마로도 화산성 토양에서 비롯된 미네랄이 충분히 느껴진다. 신선하고 짭한 산미와 함께 뒷맛이 깔끔하다. 와인만 마시기도, 해산물이나 샐러드, 치즈 등과 같이 내놔도 좋을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막... 16일까지 코엑스 개최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 ‘2025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이 오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2002년 첫 개최 이후 23회에 걸쳐 총 141만여 명의 관람객, 3200여 브랜드, 56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973명의 디자이너, 330개의 브랜드가 함께해 ‘길찾기(Wayfinding)’를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 글로벌 디자인 산업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담았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사무국 측은 이번 행사가 디자이너와 관람객 모두 현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간 교류와 영감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전시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모듈형 전기자동차’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

비스테이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 굿즈 세계 최초 공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서울 공식 팝업에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 라인업을 13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공식 팝업과 굿즈는 팬덤 플랫폼 ‘비스테이지’가 넷플릭스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넷플릭스와 함께 기획부터 제작한 것으로, 비스테이지는 향후 공식 굿즈의 글로벌 유통까지 확대하는 전과정을 총괄한다.

팝업 현장에서는 작품 속 캐릭터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의 세계관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공개된다. 대표 아이템으로는 ▲더피&서씨인형 및 키링 ▲리뷰 및 잡화 ▲K-팝 스타일 굿즈(랜덤 포토크드, 포토크드 홀더, 콜렉트북 등) ▲곡 테마 아트웍 CD키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서울 팝업 단독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망해도 괜찮으니 시작하라”

요즘 주변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기자들이 많이 보인다.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브런치에 틈틈이 쓴 글들을 묶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퇴근 후 야간대학에 다니며 석·박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용돈 벌이 겸 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취미로 만든 물건을 판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업 외 다른 일들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회사 하나 다니는 것도 벅찬데 다들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다.

‘사이드 프로젝트’ 에디션자인 저자는 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지만 나오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나이가 많다는 혹은 적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돈이 안 된다는 핑계로 마음 한켠에 접어 두었던 작은 꿈들을 부업을 통해 펼치고 살라고 독자들에게 강권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왜 퇴사 후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아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가다. 이 물음에 책은 “망해도 괜찮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저자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묘미는 실패하더라도 나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다 보니 이걸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옮겨 타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망쳐도 된다’는 마법 같은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

최재원 지음/김현주 그림/휴머니스트

주문에 숨겨진 효과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 여기저기 손대는 게 많은 데도 전부 소꿉놀이 수준에 그치는 ‘취미 부자’들을 위한 조언도 나온다. 그중 ‘독하게 기록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 대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누군가 저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두면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기꺼이 팬을 자처하며, 사이드 프로젝트의 확성기가 돼 준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또 저자는 꾸준한 기록은 아무도 모르는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한다.

216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메트로 한줄뉴스



▲아일랜드전 앞둔 호날두 야유 집중에 “착한 아이된다”는 약속 내놔 /사진 뉴시스

▲“축구 성지” 웹블리서 유로 2028 결승전 열린다 ... 개막전은 카디프

▲국립진주박물관 2025년 관람객 51만명 돌파... “개관 이래 최다 기록”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시 8개 종목 서울서 치른다... 경기장 사용 협의

▲세계유산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되나... 세운 4구역 건물 최고 높이 논란

▲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에 무죄 판결 ... 사망자 억울함 벗어